

2026. 4. 9.(목)

회원조사팀

2026년 2/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목 차

Ⅰ. 조사 개요	2
Ⅱ.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4
1. 종합 경기전망	4
2. 업종별 경기전망	5
3. 항목별 경기전망	6
4. 기타 조사 내용	7

I |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유관기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대상

- 안산지역 제조업체

3. 조사 기간

- 2026년 3월 5일(목) ~ 2026년 3월 18일(수)
- 보완 조사: 2026년 3월 19일(목) ~ 2026년 3월 31(화)

4.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5. 조사 내용

- 2026년 1/4분기 실적 및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 대내외 리스크 요인, 투자계획 등

6. 응답 현황: 총 141개사

업 종	응 답 수	업 종	응 답 수	업 종	응 답 수
섬유의복	16 (11.3%)	비 금 속	9 (6.4%)	전기전자	29 (20.6%)
목재종이	5 (3.5%)	철강금속	28 (19.9%)	운송장비	16 (11.3%)
석유화학	8 (5.7%)	기계설비	22 (15.6%)	기 타	8 (5.7%)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작성 방법

- 응답 업체의 직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를 ‘호전’, ‘악화’, ‘불변’ 으로 표시한 후, 이를 지수화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한 경우 ‘호전’ 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 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인 경우 ‘악화’ 로 표시한 업체가 ‘호전’ 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 응답업체수} - \text{'악화'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8. 제조업종별 재분류

- 본 보고서상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유사 업종을 통합시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으며,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 재분류표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재분류	비고
섬유제품 제조업	13	섬유의복	피혁, 염색, 가죽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목재종이	출판, 인쇄, 펄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가구 제조업	32	석유화학	석유화합물, 도료, 의약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비금속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철강금속	철강, 금속, 조립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전자	전기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계설비	기계설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운송장비	자동차 부품, 운송장비 부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그 외 제조업	10,11,12,27,33,34	기타	정밀기기, 식료품 등

II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1. 종합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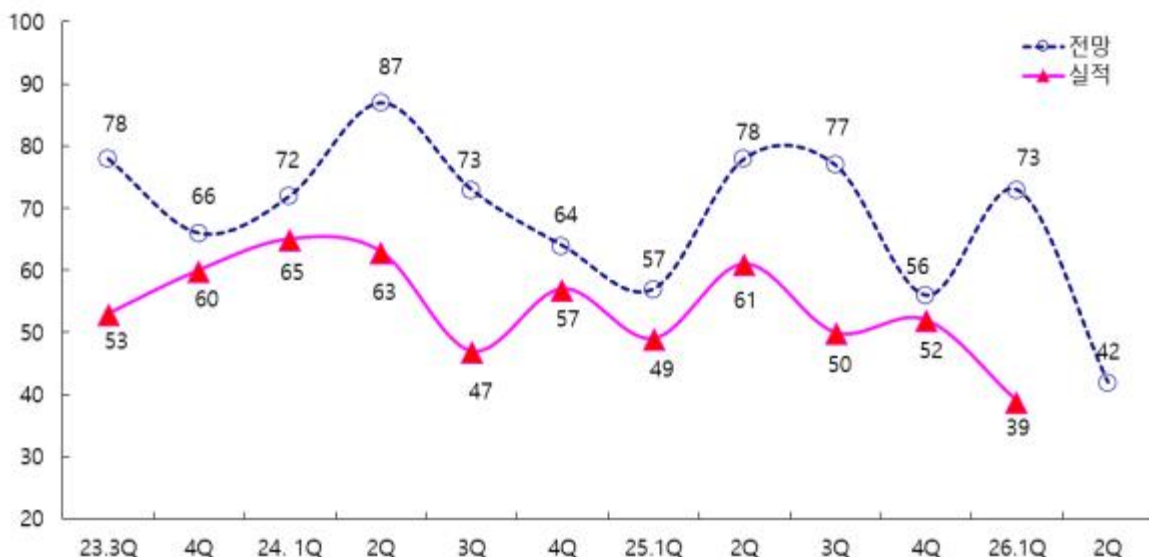
안산 제조기업 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 '41.8', 최근 3년간 역대 최저치 기록

- 전국(76.1)·경기(76.4) 대비 큰 폭 하락...안산지역 기업 체감경기 '급랭'
- 안산기업 상반기 사업실적의 최대 대내외 리스크,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 안산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1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종합 전망치는 '41.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76.1)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76.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안산기업의 경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 실적치와 전망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체감경기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기업들의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단위 %)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2. 업종별 경기전망

- 운송장비(81), 섬유 의복(75)업종은 부진 전망됨.
- 철강금속(43), 기계설비(36), 전기전자(31), 석유화학(25), 기타(25), 비금속(11), 목재종이(0)업종은 침체 전망됨.
- 목재종이 업종(5개사) 전부 ‘악화’ 라고 응답

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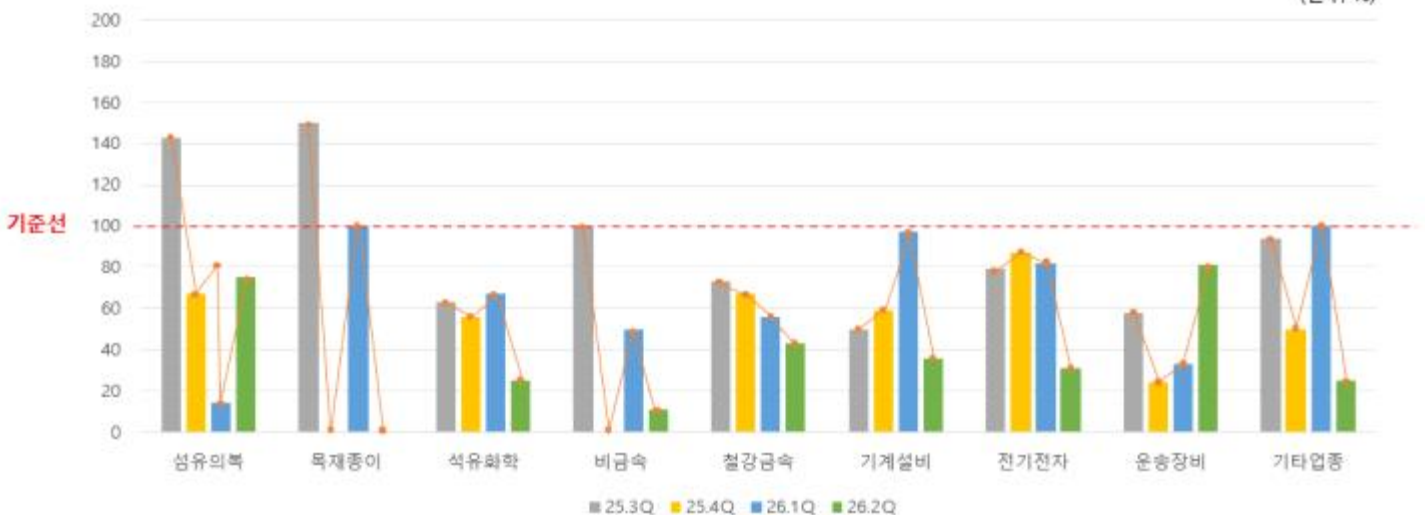
(단위 %)

업종	2025			2026		비고	업종	2025			2026		비고
	2/4	3/4	4/4	1/4	2/4			2/4	3/4	4/4	1/4	2/4	
종합경기	78	76.7	53.3	72.9	41.8	☔	철강금속	57	73	67	56	43	☔
섬유의복	129	143	67	14	75	☔	기계설비	67	50	59	97	36	☔
목재종이	100	150	0	100	0	☔	전기전자	113	79	87	82	31	☔
석유화학	78	63	56	67	25	☔	운송장비	100	58	24	33	81	☔
비금속	67	100	0	50	11	☔	기타	64	94	50	100	25	☔

주: 1) ☔ = 호조(106~), ☞ = 보합(105~95), ☔ = 부진(94~75), ☔ = 침체(~74)

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

(단위 %)



3. 항목별 경기전망

- 매출액(61.7), 설비투자(56.0), 영업이익(46.8), 자금사정(45.4) 모든 항목 침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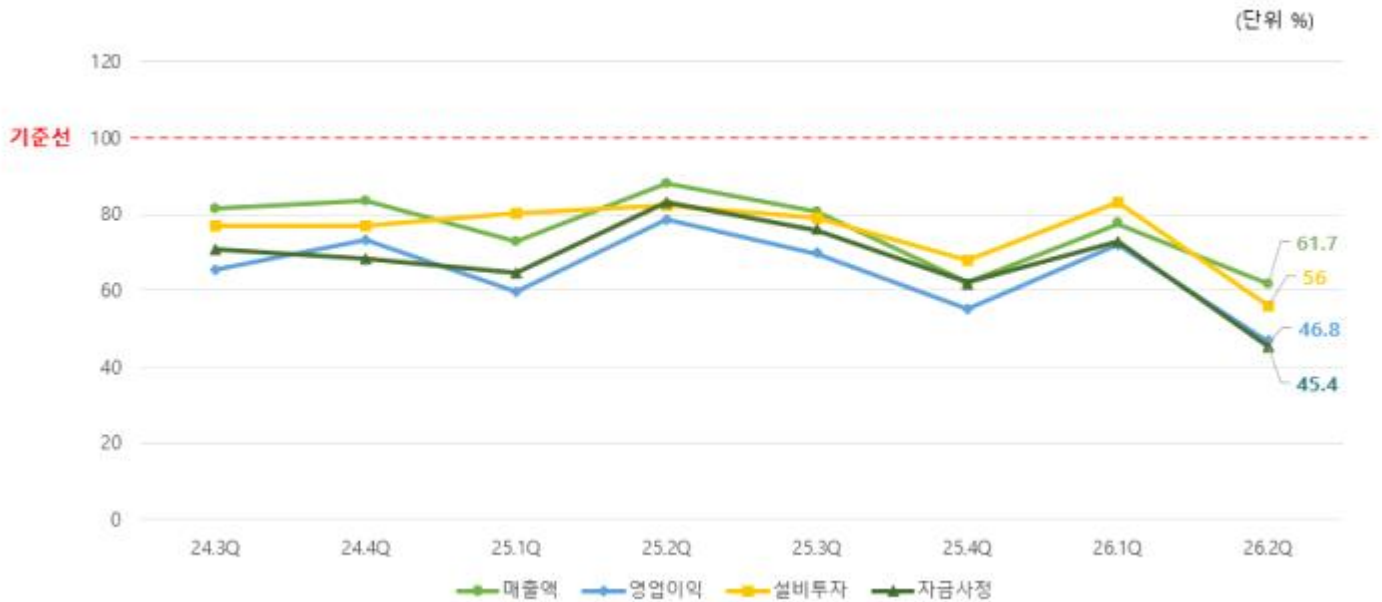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단위 %)

구 분	2025			2026		비 고
	2/4	3/4	4/4	1/4	2/4	
종합(체감)경기	78.0	76.7	55.3	72.9	41.8	↕
매 출 액	88.1	80.6	62.1	77.6	61.7	↕
영업이익	78.8	69.8	55.3	72.0	46.8	↕
설비투자	82.2	79.1	68.0	83.2	56.0	↕
자금사정	83.1	76.0	62.1	72.9	45.4	↕

주: 1) ☆ = 호조(106~), ∞ = 보합(105~95), ● = 부진(94~75), ↕ = 침체(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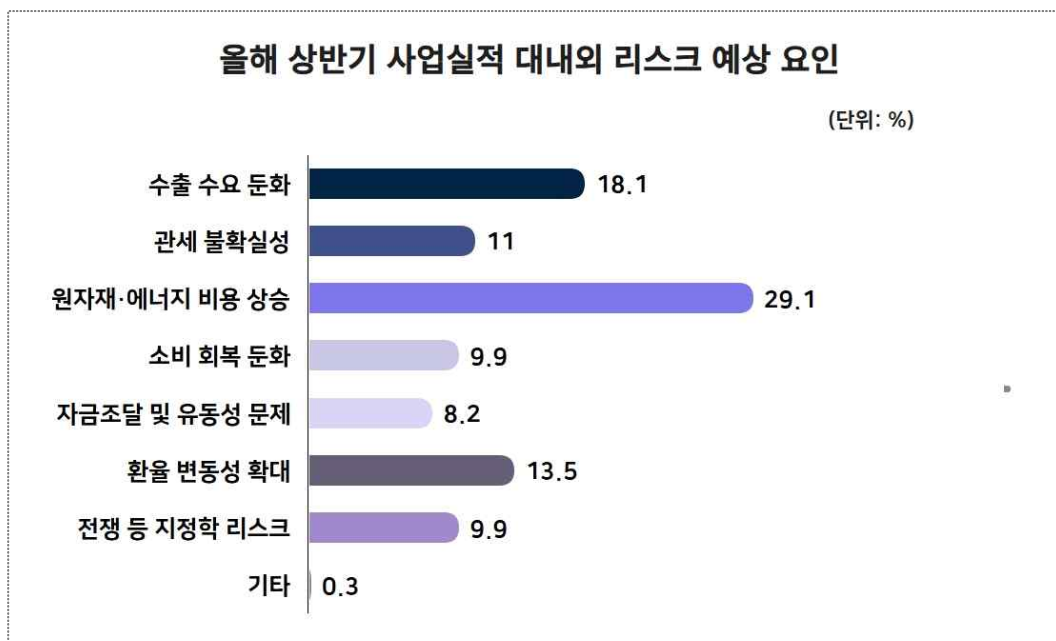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4. 기타 조사 내용

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응답기업의 29.1%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이라고 응답했고, ‘수출수요 둔화(18.1%)’, ‘환율 변동성 확대(13.5%)’, ‘관세 불확실성(11.0%)’,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9.9%)’, ‘소비회복 둔화(9.9%)’,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8.2%)’, ‘기타(0.3%)’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 수주 실패’ 라고 응답



2) 현재 시점에서 귀사의 투자는 지난해 말 또는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 계획과 비교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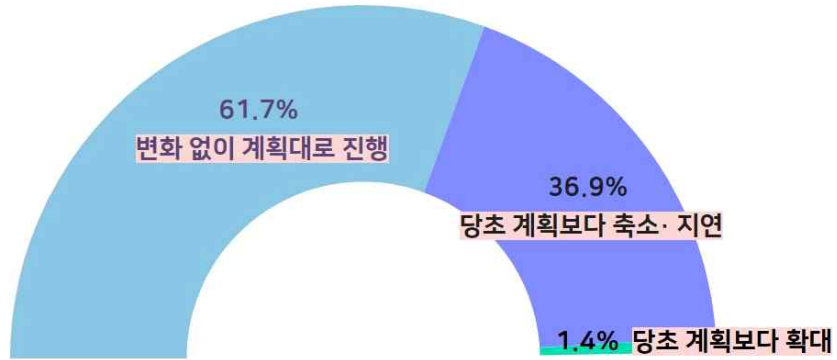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61.7%가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 이라고 응답했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36.9%)’, ‘당초 계획보다 확대(1.4%)’ 순으로 응답

2-2) 귀사의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30.8%가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 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25.0%)’, ‘수요 등 시장 상황 악화(21.2%)’, ‘자금조달 여건 악화(19.2%)’, ‘내부 의사결정 지연(1.9%)’,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1.9%)’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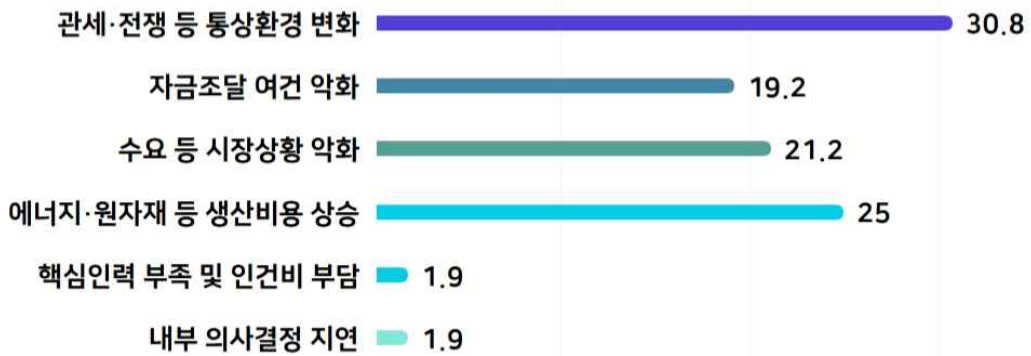
당초 계획 대비 상반기 투자계획 변동 여부

(단위: %)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 예상 이유

(단위: %)



3)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2/28)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사태가 현재 귀사의 경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응답기업의 75.2%가 ‘영향 있음’ 이라고 응답했고, 24.8%가 ‘영향 없음’ 이라고 응답

3-1)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귀사가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27.8%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해상운임·물류비 상승(24.2%)’,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14.9%)’,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13.3%)’, ‘중동 현지와의 거래·영업활동 차질(11.7%)’, ‘수출입 물류 지연(6.9%)’, ‘기타(1.2%)’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국제 정세의 불안에 따른 고객사의 국내 제조 수주 감소’, ‘고객사의 물량 확대 요청’, ‘거래업체의 원자재·부품 수급 문제로 인한 수주 감소’ 라고 응답

4) 향후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귀사 경영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응답 기업의 64.6%가 ‘피해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일부 피해 예상(51.8%), 많은 피해 예상(12.8%)]한다고 응답했고, ‘현재로선 판단 불가(28.4%)’, ‘피해 없음(7.0%)’ 응답

4-1)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귀사 경영에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57.1%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4.3%)’, ‘운임 상승·항로 변경 등 물류 차질(13.2%)’, ‘수출 감소 등 해외 거래 위축(8.8%)’,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4.4%)’, ‘중동지역 사업 및 투자 차질(2.2%)’ 순으로 응답.

- ※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http://ansancci.korcham.ne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T. 031-410-3030(#247)】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발행처: 안산상공회의소

○ 발행일: 2026. 4. 9.

[비매품]